

亞문화도시 손잡는다

中·日 등 10개 도시 市長 9월에 광주 집결

발전 방향 모색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선언

아시아 10개 문화도시 시장들이 광주에 모여 아시아 문화도시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광주시는 27일 “아시아 10개 문화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2009 아시아 문화도시 시장 회의(ASCA : Asia Summit of Culture Cities)’를 9월 2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광주시와 일본 삿포로·가고시마, 중국 엔타이·난창 등 동아시아 5개 도시를 비롯해

시우디아라비아 빠카, 아랍에미리트 후자리아, 네팔 카투만두, 터키 콘야, 베트남 트어티엔후에, 태국 치앙마이 등 아시아 5개 권역별 문화도시 시장 및 대표들이 참석한다.

시장회의는 개막 당일 ‘아시아 문화도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아시아 문화도시 간 공동 발전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또 광주의 주요 문화예술시설과 산업체를 탐방하고 9월 3일에는 2009 광주국제문화산업창의전 개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현혈 가장 많이한 공무원은?

최고·최장 등 ‘기네스 기록자’ 선발

행정안전부는 최다·최초·최장 등 각종 최고 기록을 보유한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최고 기록 공무원’ 선발 종목을 공모해 ‘업무경쟁력 및 역

위 최다 보유 및 최단기간 취득자, 자격증 최다 보유자, 서적 최다 저술자, 어학시험 최고 득점자, 최다 특허 출원자 등을 선발한다.

‘특이기록 부문’은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공무원, 최다 한혈자, 최다 자녀 입양자, 자원봉사 최다 횟수 보유자, 한집 최장 거주자, 한 부서 최장 근속자, 세계인명사전 최다 등재자 등을 뽑는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이 정도 꼬이면 풀길도 막막...

市 공유재산 효율 관리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광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구성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주관하며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예산·문화산업·경제·사회·복지·환경 정책 등 관련 부서의 실무과장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유재산 심의회는 기본 서면심의 과정에서 벗어나 2개월 단위로 광주시 재산관리에 대한 주요정책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일시·2009년 7월 27일 (화) 오후1시 30분 ■ 장소·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 주최·국회외원 김영진 ■ 후원·광주

‘별관’ 10인 대책위

오늘 문광장관 면담

‘옛 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이하 10인 대책위)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전 옛 도청 별관 문제를 놓고 첫 공식 면담을 갖는다.

10인 대책위 간사위원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조영택 국회외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에서 갖는 면담에서 유장관에 별관의 1,2층 일부를 허어내 문을 만드는 ‘오월의 문’과 ‘3분의 1 존치’ 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입장장을 들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1차 면담은 국회 본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미디어 관련법 처리 때문에 유장관의 일정에 변동이 생겨 연기됐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U대회 성공개최 토론회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U대회 성공적 개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 도중 패널들이 U대회 특별법에 /위즈링기자 jwji@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탄력

국토부, 기본 계획 변경 승인 요청땐 수용 시사

정부가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불려졌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부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에 대해 협의의 결과 ‘광주시가 2호선 건설 기본 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건설 본부 관계자는 “2호선 노선인 확대 순환형은 물론 건설계획에 대해 시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며 “더욱이 정부가 2호선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확대순환선 신설 비용이 모두 1조9천62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건설비(시비)는 7천877억원으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용(7천939억원)과 비슷

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2월께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신청·승인 절차를 밟아 2011년 하반기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사전 환경성 검토, 타당성 용역을 발주, 내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건설 본부 관계자는 “2호선 노선인 확대 순환형은 물론 건설계획에 대해 시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며 “더욱이 정부가 2호선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확대순환선 신설 비용이 모두 1조9천62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건설비(시비)는 7천877억원으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용(7천939억원)과 비슷



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 1호선 부지상한액이 오는 2011년 이후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건설비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자전거 실을 수 있는 ‘레포츠 열차’ 늘린다

2012년 교통수단 분담률 5%로

앞으로는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레포츠 열차’ 운행이 확대되고,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2%인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2년까지 5%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액션 플랜(Action Plan)’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정부에서 지난 2월 확정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13개 과제 중 국토부가 담당하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분야에 해당한다.

우선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에 따라 4대강 하천제방에 1천728

km의 자전거길이, 경인 아라뱃길 양안에는 2011년 말까지 36km의 자전거길이 각각 조성된다.

취약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국도에는 2013년까지 1천700km의 자전거도로가, 환승 수요가 많은 철도 역에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400~500대) 등 전세계적으로 1만5천대의 자전거 보관시설이 구축된다.

국토부는 또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레포츠 열차’ 운행을 위해 자전거 동반승차는 중앙선·용산~국수)에 시범운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에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도시 구조 개편을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다목적 위성 아리랑 2호

2년간 우주에 더 머문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의 임무 연장이 추진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 탑재체, 명령 수신 및 처리, 열, 전력, 자세 제어, 추진제 기능 등 모든 부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우연은 오는 28일 발사 3주년을 맞는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임무를 1차로 2011년 7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는 1m급 해상도의 탑재체를 포함하는 800kg급 지구궤도용 정밀 실용위성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2006년 7월 28일 러시아의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발사됐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광고 접수는 메일 또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는 월 1회로 예상되는 예산과 주제에
기반해 예상되는 예산과 주제에
기반해 예상되는 예산과 주제에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업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 전화(062)227-9600 · FAX(062)227-9500

• 이메일: dd8111@hanmail.net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8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주인 011-765-9388

판권부지: 도로점, 관리지역

주인 011-765-9388